

2024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제4차)

구 분	인 원
정 수	12인
재 적	12인
참 석	9인

1. 회의 개요

- ☐ 일 시 : 2024. 01. 22.(월) 14:00 ~ 16:00
- ☐ 장 소 : 믿음관 3층 세미나4실
- ☐ 참 석 : 재적위원 12명 중 9명 참여
 - 교직원위원 : 정세훈, 최승구, 오충현
 - 전문가위원 : 한지웅
 - 학 생 위 원 : 백다연, 이거파, 김윤아, 이나라, 고완상
- ☐ 불 참 : 구효진, 류재경, 정재덕
- ☐ 배 석
 - 교직원 배석자: 학생팀장 진선범, 총무팀장 김종록, 시설팀장 김경수
 - 학생 배석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하성문, 유아교육과 부학생회장 신희정, 간호대학 박세현 회장

2. 안건

- 1) 2024학년도 신한대학교 등록금 책정(안)에 관한 사항

3. 회의 내용

- 정세훈 위원장: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재적위원 12명 중 9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어 본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적법하게 성립됨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함
- 정세훈 위원장: 오늘 회의 시작에 앞서 학교측 및 학생측 관계자의 배석 요청이 접수되어 예외적으로 위원장으로서 학생과의 소통 차원에서 배석하는 것에 위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함을 설명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요청함

간 서 명	정 세 훈	한지웅	백다연
-------	-------	-----	-----

- 전체위원: 학교측 관계자 및 학생측 관계자 배석하는 것에 동의함
- 오충현 위원: 회의 참석 전에 배석자에게도 보안서약서 제출을 요청함
- 정세훈 위원장: 회의장 밖에 대기하고 있는 배석자 회의장 입장을 요청함
- 정세훈 위원장: 배석자는 발언이나 질의를 할 수 없음을 설명하며 학생측 관계자부터 자기소개를 요청함(학생측부터 학교측관계자까지 각자 자기소개를 함)
- 정세훈 위원장: 학생측 및 학교측에서 준비한 회의자료 배포를 요청함
- 정세훈 위원장: 4차에 걸쳐 진행하고 있는 2024학년도 신한대학교 등록금 인상
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등
록금 인상(안)을 남호인 간사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요청함
- 남호인 간사: 2024학년도 신한대학교 등록금 인상(안)에 대해서 다시 설명함
- 정세훈 위원장: 학생측에서 준비한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
- 이거과 위원: 발언에 앞서 전차 회의때 요청드렸던 혁신지원사업의 사업비 현황,
계열별 등록금 인상 재조정(안), 등록금을 동결할 경우의 예산계획
(안), 증명료 수입 및 지출 현황 자료 제시를 학교측에 요청함
- 남호인 간사: 준비된 자료를 배포하며 요청한 자료에 대해 설명함
- 이거과 위원: 국가장학금 II 유형 장학제도의 세부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함
- 남호인 간사: 최소 전년도 기준 5.5억원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
도록 절차 및 기준을 별도로 정할 계획이며 학생들의 등록금을
납부할 시점이 2월 초이므로 그전에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원 계
획을 공포할 예정임을 설명함
- 학생팀장: 부연 설명을 추가로 드리면 즉각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작년 기준에 맞출 계획이며 현재 시뮬레이션 중으로 국가장학금이 5월
이후 확정되기 때문에 학생팀 입장에서는 전액 다 보전할 계획을 세우
고 있고 해당 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함
- 정세훈 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는지 확인함
- 백다연 위원: 관련하여 추가 질문을 드리면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
원 기준대로 학생 한명당 받는 금액은 보장이 되는것 인지 질의함
- 학생팀장: 당연히 보장됨을 설명함
- 이거과 위원: 배포해 드린 학생측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말씀드리기 전에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입장임을 확실히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가상승률을 인상의 근거로
잡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함. 2014년도 기준 소비자 물가상승

간 서 명	정 세 훈	최승규	백다연
-------	-------	-----	-----

른은 1.3%를 기록했으나 등록금 책정 기준은 2014년 물가상승률
 을 따르지 않으면서 2024년 물가상승률 3.76%를 근거로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 두 번째 근거는 대학이 힘든
 시기인 것은 알고 있으나 강원도 내 대학교 9개 중 5개의 대학
 이 동결 기조이며 1개의 대학이 이미 동결을 선택했음 경기북부
 는 다를 수 있으나 같은 지방 대학들 역시 동결을 선택한 학교
 또한 존재하며 2024년 서울대학교, 부경대학교, 군산대학교에 이어
 경북대학교, 전북대학교 및 전주대학교 등 국립대학교도 동결 행
 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에 의문이 듬
 세 번째 근거는 등록금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등록금 의존율을
 줄이고 교내 재정구조에 대한 혁신이 필요함 2022회계연도 결산
 기준 전국 사립 일반대 190개교의 재정수입 총액 대비 등록금
 의존율은 51.4%로 전년(53.5%)보다 2.1%포인트 떨어지고 있는 상
 황임 대학알리미의 자료를 토대로 만들었기에 신뢰도가 있음을
 설명함 대학원 및 유학생들(단기수강생 포함)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함 타대학 전수조사 결과 지방대학 중 동결을 결
 정한 대학이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음 학교가 등록금을 인상하
 여 재정운영을 타계할 것이 아니라 외부사업 탄소중립센터, 국제
 포럼, 혁신사업 등 정부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함 뉴스기사
 에 의정부시 재정지원사업 60억 중 3분의 2에 가까운 36억여원
 의 금액을 신한대학교가 혜택을 받았는데도 재정이 어렵다 하는
 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근거자료임 네 번째 근
 거는 교육부에서는 국가장학금Ⅱ유형 예산을 500억원 증액하여
 (2024년 3,500억원)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을 지원하
 며 아울러, 2024년부터 대학별 국가장학금Ⅱ유형 예산 배분 방식
 을 개선하여 국·공립대에 비해 등록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립대학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이
 결 받지 않고 굳이 등록금을 인상해서 대학 내에서 해결 해야
 하는지가 의문 임 대학이 교육혁신이 필요한 재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2023년에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고등
 교육예산을 대폭 확대 함 또한 2024년에는 대학·전문대 혁신지원
 사업비를 전년 대비 100% 증액하고 국립대학 육성 및 지방대전

간 서 명	정 세 훈	최승구	백다연
-------	-------	-----	-----

문대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25% 수준으로 증액한다고 하는데 등록금을 인상을 왜 하는지 의문이 듦 다섯 번째 근거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정식으로 정원수를 줄인 타학교와 달리 2023년, 2024년 구조조정으로 태권도학과 50명을 더 증원해서 정원을 채운 신한대학교는 등록금 수입액 감소라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음 또한 당 시도 정원 수가 감소 된 보건 계열 학생들의 교수진 배치와 수강과목 수 등 문제 개선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음 이와 관련 2022년부터 구조조정에 관한 회의록에 다 남아 있음을 설명함 여섯 번째 근거는 냉난방 공사, 무선네트워크 및 서버 교체 등 2024학년도 추가 등록금 사용(안)에 있는 보상들은 2023년도 5월부터 계획안이 나와 있었던 것이므로 등록금 인상의 보상으로 보기에 부적절함. 그 외의 보상들은 강의실 칠판 및 스크린 교체, 말씀관 일부 냉난방 공사인데 실태조사와 견적의뢰 중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냉난방의 경우 2022년 복지위원회에서부터 언급이 되었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024년에 들어서 입찰 및 견적의뢰가 들어감 2024년 등록금 인상 시 막상 인상 한 학생들 현 3,4학년 혹은 2학년까지도 그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고 등록금만 인상된 채로 졸업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며 인상시엔 냉난방 수리의 건물 수를 늘리거나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무료, 셔틀버스 일산행 요금 무료화, 화장실 문틈 보수 공사 등 2024년 학교를 다닐 재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있어야 하며 현 재학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임 일곱 번째 공평하지 않은 계열별 인상안으로 실습실과 실습기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인문계열에게 4.67%의 비율이 올라가는 것은 불합리하며 계열간의 분쟁을 초래할 수 있음 최우선적으로 동결을 요구하는 바이지만 인상을 하게 된다면 그 비율은 동등하게 올라야함으로 1,000만원대로 오르면 안되는 공학계열의 퍼센트인 2.06%에 맞추는 것을 요구함 등록금 동결을 요구하는 입장이므로 등록금 인상시 요구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을 것임 여덟 번째 근거는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음 1월 21일 19시 기준 방학, 주말 중에도 1,7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반대 서명을 진행하였고 이 속도라면 26일까지는 50%의 학생들의 서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학생을 위하는 학교를 자신하신다면 학생들의 절규를 무시

간 서 명	정 세 훈	최승규	백대연
-------	-------	-----	-----

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라며 이러한 근거들로 신한대학교의 등록금 인상을 반대함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직원 분들의 노고와 학생을 위하는 마음은 아나 그것이 진정 학생을 위하는 길인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학교가 있어야 학생이 있지만 학생이 있어야 학교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부르짖는 학생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학생 중에는 직접 학비를 벌어서 충당하는 학생들, 부모님이 모아주신 피같은 돈으로 다니는 학생들,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국가의 도움을 받아 다니는 학생들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분들이 들여다 봐주시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삶에 지옥이 시작 될 겁니다. 학생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여러분의 학교를 위해 현재 재학생들이 희생해야한다는 생각은 학생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부디 우리와 같은 속도로 발을 맞추어 걸어주세요. 부디 학생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 정세훈 위원장: 학생위원님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는 하고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등록금 인상은 수많은 고민과 대학의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된 사안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학생위원님들이 주신 등록금인상의 반대 의견에 대한 학교측 입장에 대한 답변을 요청함 먼저 물가상승률 부분에 대해 남호인 간사에게 설명을 요청함
- 남호인 간사: 학생 위원님들의 의견은 충분히 들었으나 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임을 다시 한번 말함 2014년에는 대학을 통폐합하면서 4년제 신설대학의 등록금을 타대학의 자료를 조사하여 새롭게 책정을 한 것이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설명드리며 이해를 요청함
- 이거과 위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는 부분에는 현실적으로 맞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지막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것은 등록금 인상의 논리로는 맞지 않는 것 같음
- 오충현 위원: 부연 설명을 드리면 2년제 신흥전문대와 4년제 한북대학교가 통합을 하여 2014년 3월 1일에 새로운 대학인 신한대학교를 신설하면서 등록금을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부분은 다른 부분임을 추가로 설명함

간 서 명	정 세 훈	최 동 구	남 호 인
-------	-------	-------	-------

- 이거파 위원: 다른 개념인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학교가 제시한 등록금 인상 의 근거로 따지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함 타대학의 동결 기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함
- 남호인 간사: 타대학의 등록금 인상 여부도 많이 고려는 하지만 우리대학의 등록금 인상은 별개의 건이라고 생각을 하며 대학의 재정 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교측에서는 등록금 인상이라는 대안이 도출이 된 것임을 설명함 대외적으로는 대학의 재정을 진단하여 재정건전성 여부에 따라 재정위기 대학이 되면 학자금, 국가장학금, 정부재정지원사업 등을 전부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학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함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등록금 인상이 결정된 것으로 타대학의 인상여부는 참고 정도임을 설명함
- 최승구 위원: 재학생을 바보로 보지 마십시오 라는 말이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의 역사를 잘 아는 입장에서 저희 대학이 1972년에 전문학교로 개교를 해서 2014년에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을 통폐합을 하고 가는 과정이 다른 대학과 비교할 수 없이 상당히 어려웠고 1972년 시작해서 이런 단계별로 한나라의 역사도 흘러가야 되듯이 계속 발전적으로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과정을 버티어 준건 그동안 신한대학교 함께 해온 학생들의 도움이 컸음을 말씀을 드리고자 함
- 이거파 위원: 지난 2차, 3차 회의에서도 나왔던 얘기였고 그때의 사정이 현재의 재학생들의 책임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학생들이 원해야 하고 50%의 학생들이 후배들을 책임지어 주는 것을 원하지 않을꺼라는 것을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시기를 요청함
- 오충현 위원: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책정 및 예·결산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데 사전에 검토하고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들까지도 위원회에서 학생들하고 의견을 주고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며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따로 모여서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떨지 의견을 제시하며 등심위가 막바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등심위에 안전으로 올리기 전에 사전 검토 단계가 있었으면 함
- 정세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번 주에 학생대표들이 모여서 긴급 확대운영위원회 개최 하였고 도출된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기에 사전에 논의하는 단계를 거쳤다면 좋아겠지만 그럴 수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간 서 명	정 세 훈	최승구	백대연
-------	-------	-----	-----

- 오충현 위원: 학생측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바로 답변이 어려운 부분도 있음을 말함
- 이거과 위원: 대학의 자구노력, 대학의 재정 상황 등을 저희도 미리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학교측에서는 소통방법에 대해서 강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음
- 정세훈 위원: 다음으로 등록금 의존율에 대해서 남호인 간사에게 답변을 요청함
- 남호인 간사: 오전에 자료를 받게 되어 공유할 시간이 없었음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며, 등록금 의존율이 낮은 다른 대학은 기부금, 적립금, 법인 전출금이 크거나 동문이 활성화 되어 있던지 하는데 저희는 타대학에 비해서 이러한 부분이 부족하기에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편이며 정부재정지원사업 등을 활성화기 위한 노력은 계속적으로 하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함을 설명함 의정부시 재정지원사업은 코로나 시국에 의정부시에서 지원하는 재원이며 의정부시에서 지정한 사업으로만 사용하였음을 설명함 대학원 1학기 등록금을 동결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함
- 정세훈 위원장: 다음으로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여러 차례 계속 말씀드렸듯이 등록금을 인상하더라도 장학금 혜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갈 것임을 다시 말하며 등록금 인상은 교육환경개선에 비중을 두고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요청함
- 이거과 위원: 장학제도에 관해서는 동일하게 지급해 주신다고 했는데 똑같이 진행되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며 만약에 인상하게 되어도 올라간 금액의 장학금을 학생들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함 저는 학교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며 현재는 인상할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함 등록금 의존율을 줄일수 있도록 정부재정지원사업에 더 집중을 하고 학생들과 받을 맞춰가기를 강력히 주장함
- 오충현 위원: 재정지원사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보면 혁신사업비에서의 대학 재정 지원(인건비, 환경개선비 등)은 2023년도부터 대학이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지원이 되었고 우리대학이 재정지원사업을 2021년까지는 받지를 못했으며 그 이전에는 적립금을 사용하여 운영을 하였음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의 대부분이 특수 목적 사업을 위해서 사업비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기에 대학에서 필요한 직접적인 비용인 인건비,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것에

간 서 명	정 세 훈	최/동규	백대연
-------	-------	------	-----

는 한계가 있음 대학혁신지원사업비도 더 늘어날꺼라고는 하지만
저는 지원 비율이나 방식 변경 등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음 의정부시 재정지원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며 관련
사업 유치를 통해 교내 재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음을 설명함

- 이거파 위원: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며 혁신지원사업
등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지만 그래도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집중하여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맞다고 봄
- 정세훈 위원: 한가지 예를 들면 예산처에서는 재정의 어려운 것을 헤쳐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필요하여 혁신지원사업으로 지원을
요청하면 혁신사업의 경우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만을 지원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함
- 이거파 위원: 혁신지원사업비의 흐름과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였으
나 혁신사업비 관련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저희가 자료를 받지를
못했음 자료제공에 있어서 벽을 느끼며 신뢰가 떨어질수도 있으
니 자료 제공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길 요청함
- 최승구 위원: 총무처 입장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
으나 외부 사업에 대한 정보를 바로 공개해 드리기가 쉽지 않음
을 설명함
- 이거파 위원: 학생위원한테도 열람되지 않는 정보라면 저희는 학교에 대한 신
뢰감이 많이 감소한다고 말함
- 최승구 위원: 일부러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아님을 다시 말함
- 이거파 위원: 요청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것이 노력을 한다는 말로 끝내기
는 이해하기가 힘들음을 말함
- 최승구 위원: 외부사업에 대한 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며 양해를 요청함
- 정세훈 위원장: 혁신지원사업 관련해서는 등심위 회의와는 별개의 문제인거 같고
대학간의 경쟁이라서 보안이 필요한 사항이라 사업계획서 등을
제공할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회의진행과는 별개로 중요
하지 않은 것 같음
- 오충현 위원: 혁신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자료를 정리중으로 제공 여부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함
- 이거파 위원: 위원장님의 말씀중에 정정을 하고 싶은게 있는데 혁신지원사업은 별개가
아닌 등록금 동결시의 중요한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중요함을 강조함

간 서 명	정 세 훈	최/승구	백대연
-------	-------	------	-----

- 정세훈 위원장: 제 단어 사용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보는 시선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함
- 정세훈 위원: 다음으로 입학정원 관련하여 남호인 간사에게 답변을 요청함
- 남호인 간사: 학생측에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동일한 건으로 되풀이하는 상황이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음 입학정원은 감축이 된 것이 맞고 학과구조조정을 통해 학과정원을 조정한 것임을 설명함
- 이거과 위원: 보건계열의 입학정원이 조정되면서 피해를 보는 계열이 분명히 있었고 입학정원이 감축된 것을 등록금 인상의 근거로 삼으면 이미 피해를 본 계열에 또 피해를 주는 것이라 인상 근거자료로 부적합한 것으로 생각됨
- 오충현 위원: 학생들의 의견에 대해 대학의 정책결정권자들이 협의를 하여 다음 등심위에서는 설정된 방향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기를 요청함 화장실 문틈 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는데 처리가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겨울방학에는 해결해 주시기를 요청하며 학생들의 민원에 대한 소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을 말함
- 이거과 위원: 등록금 인상이 안되더라도 기본적인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알아주시기를 요청함
- 최승구 위원: 이러한 의견들이 소통의 부재에 따른 문제인거 같은데 총무처 입장에서는 수입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예산절감 정책에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을 하다보니 일부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있음을 설명함
- 이거과 위원: 화장실 문틈을 문풍지로 막는 것으로 처리하였는데 학생의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학교가 학생들과 소통을 안하는 것으로 보임 학생들에게 책임을 묻지 말고 대학의 노력이 필요함을 말함
- 정세훈 위원장: 화장실 문틈 보수 공사는 최우선으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음을 말함
- 이거과 위원: 2차, 3차 회의때 이미 말씀드렸듯이 2024년에 맞는 보상 체계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드린 의견임을 말함
- 최승구 위원: 2024년에는 최대한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말함
- 이거과 위원: 그러면 등록금 동결일때와 인상일때를 구분해서 알려주실 수 있는지 질의함
- 최승구 위원: 구분을 할수 없음을 말함
- 정세훈 위원장: 등록금 인상 결정되면 본예산 편성 시 반영이 될 예정임을 설명함

간 서 명	정 세 훈	최승구	남호인
-------	-------	-----	-----

- 이거파 위원: 교육환경에 대한 문제 및 개선은 당연히 학생들이 누려야 하는 것
들인데 인상안이 나오면서 해주겠다고 하고 동결되면 안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부분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허무함을 말함
- 정세훈 위원장: 대학의 재정여건 및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심하
다가 등록금 인상안이 나왔으며 얼마전에는 학생측의 긴급학
대회의도 있었고 오늘 특별히 배석한 학생들도 있으니 오해가
있는 부분은 바로 잡고자 회의 진행 관련해서 이해를 요청함
- 정세훈 위원장: 다음으로 계열별 등록금 관련하여 남호인 간사에게 설명을 요청함
- 이거파 위원: 하나 정정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사항들은 질문사항이 아
니라 등록금 인상 반대에 대한 근거자료입니다. 만약에 제가 제
시한 근거자료가 잘못된 것이라면 관련하여 증빙을 바로 제시해
주신다면 빠른 회의가 진행 될 것으로 생각됨
- 남호인 간사: 학생측에서 제시하신 계열별 등록금을 공학계열에 맞춰 2.06%로 하
게 되면 약10억 정도가 나오는데 제가 판단하여 수용 가능여부를
바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인상의 목적과 부합하지 못하고 의
미가 없음을 설명함
- 이거파 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계열별 등록금 인상을 조정안 조차도 반대였지
만 학교와의 타협점을 찾기 위해 제시한 것으로 계열별 등록금
을 동일하게 2.06%로 인상하고 학교측에서 제시한 보상을 모두
지원해 주신다면 한번 고려를 해볼 생각 있었으나 받아들일 수
없다 하시면 계열별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을 말함 저희가 양보하여 계열별 2.06%로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
을 제시해 드렸는데도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면 저희는 계열별 등
록금 동일 적용조차도 반대이며 동결을 요청함
- 정세훈 위원장: 등록금 인상에 대한 반대 근거를 가지고 오셨는데 답변이 되셨는지 질의함
- 이거파 위원: 물가상승률 빼고는 답변이 되지 않았음을 말함 무책임한 태도와
소통의 부재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음을 말함
- 정세훈 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는지 확인함
- 백다연 위원: 등록금 인상 관련 학교측 입장과 동결 관련 학생측 입장관련해서
여러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지만, 만약에 등록금을 인상을 하게 되
면 재학생들을 설득해야 하는건 우리 학생위원들의 몫이 될 것

간 서 명	정 세 훈	최승우	백다연
-------	-------	-----	-----

같기에 저번주 진행되었던 긴급 확대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내용으로 원초적인 질문이 될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이기에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음을 말씀드리며 먼저 만약 등록금을 동결하게 된다면 예상되는 등록금 수입이 얼마 질의함

- 남호인 간사: 2023년도의 등록금 수입이 약513억원 정도로 2024년에 48명이 더 감축되고 재학생 및 신입생 충원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약 508억에서 510억 미만으로 예측하고 있음
- 백다연 위원: 냉난방 공사를 진행하는 건물로 행함관, 기도관을 선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질의함
- 남호인 간사: 학생들의 민원을 바탕으로 가장 시급한 것 중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행함관과 기도관을 선정하였음 참고로 행함관과 기도관은 지열로 운영하는 방식이라 대규모 공사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고 말씀관과 에벤에셀관은 EHP방식이라 층별로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음을 설명함
- 백다연 위원: 민원을 바탕으로 기준을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작년 총학생회 복지국에서도 설문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건물별로 시설 관련 민원자료를 찾아 봤을 때 은혜관과 에벤에셀관에 대한 부분도 민원이 많았는데 인문사회계열 학생이 많이 사용하는 은혜관과 에벤에셀관이 왜 배제가 되었는지 질의함 추가로 말씀드리면 은혜관에 천장누수 및 화장실 문에 대한 시설보수 요청도 굉장히 많았고 에벤에셀관의 경우에는 누수가 발생해 총학에서 해결을 해 준적도 있음 등록금 인상이 되었을 때 추가적인 시설보수에 대한 요구사항은 대출금으로 상환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 남호인 간사: 행함관과 기도관에 대한 공사는 이미 입찰 공고를 한 상태이고 에벤에셀관 및 말씀관 그리고 나머지 시설보수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여 시설팀 예산 내에서 시급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할 계획이나 예산이 부족하여 원하는 모든 것을 해드릴 수 없음을 말함 만약 대출을 받게 된다면 금리가 2%대에서 5% 후반 정도로 등록금 회계에서 상환을 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함
- 정세훈 위원장: 건물별 냉난방 공사 관련 시설팀장의 부연 설명을 요청함
- 시설팀장: 중앙냉난방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건물이 5개 정도 있는데 열손실이 높고 노후화가 심한 행함관과 기도관을 우선순위로 정하게 되었고 2개의 건물을 우선적으로 보수를 하게되면 은혜관 및 믿음관은 자연

간 서 명	정 세 훈	김동주	백다연
-------	-------	-----	-----

스럽게 에너지 효율이 올라가게 되고 전체적으로 설비들이 노후화가 심하고 교체 시기가 모두 한꺼번에 도래하게 되어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다른 건물들은 층단위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음을 설명함

- 백다연 위원: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한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금 부족 및 시설보수 부분은 이해는 하였는데 은혜관 도봉홀 같은 경우 천장이 깨져 내부 구조물이 보이고 비가 오면 매번 물이 떨어지는데 만약에 등록금이 동결된다면 관련 공사는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질의함
- 남호인 간사: 등록금 인상 여부와 관련 없이 시설팀에서 확인은 하겠으나 재원의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말함
- 백다연 위원: 등록금 인상 시 왜 2캠퍼스에 대한 지원 계획은 없는지 질의함
- 남호인 간사: 2캠퍼스에는 간호대학과 사이버드루트군사학과만 남아 있는 상태로 활성화 방안을 따로 계획하고 있으며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따로 명시는 하지 않았음
- 백다연 위원: 2캠퍼스 지원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재차 질의함
- 남호인 간사: 2캠퍼스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아는 부분에 한해서 말씀드린점 양해를 요청함
- 백다연 위원: 모리아관 강의실 공사는 이미 진행 중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공사가 시작된 배경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청함 등록금 수입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공사가 누구의 요청으로 시작이 되었고 어떠한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의결기구를 거친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할 수 밖에 없음을 말하며 답변을 요청함
- 남호인 간사: 여러번 말씀을 드렸듯이 대학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택한 것이 외국인 유학생 모집 활성화로 국제처에서 20명씩 운영할 수 있는 중소규모 강의실을 요청하였고 모리아관에 14개의 강의실을 만들어 오전에는 외국인 학생 오후에는 대학원 및 학부에서 사용할 계획임을 설명함
- 백다연 위원: 학부생들의 사용 비중에 대해서 질의함

간 서 명	정 세 훈	최승주	백다연
-------	-------	-----	-----

- 남호인 간사: 아직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학부생들이 활용하게 될지는 정하여진 부분은 없지만 최대한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임을 설명하며 주 이용 학생은 외국인 학생 될 것임을 설명함
- 백다연 위원: 등심위 3차 회의때랑 연관된 질문으로 국제대학 모집에 관한 질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외국민 모집요강에는 국제대학 모집 관련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다시 한번 관련해서 설명을 요청함
- 남호인 간사: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재외국민 모집요강에는 실제 입학하는 당사자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학금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설명함 입학에서 모집하는 외국인학생의 경우는 학부에서 편입되어 기존 재학생들과 동일하게 수업을 듣는 학생 위주로 모집이 진행되었고 어학연수생(단기연수생)의 경우에는 국제어학센터에서 별도로 모집을 하고 있으며 정원의 외국인 유학생, 어학연수생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은 학부의 교육환경개선 비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음 국제대학의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모집을 진행하고 있고 정원외로 모집이 되어 모집인원에 제한이 없음을 설명하며 구체적인 모집인원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릴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음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신규 신설이되는 국제대학에는 일부 투자가 필요한 부분도 있음을 추가로 설명함
- 백다연 위원: 자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2023학년도 계절학기 수입은 어느 정도 인지 질의함
- 남호인 간사: 여름학기는 약6천정도 이고, 겨울학기에는 약5~6천 정도 인걸로 알고 있음 일부 전공에서 개설하는 계절학기는 강의료를 안 받고 진행되는 부분도 있음을 설명함 계절학기에 경우에는 학기 종료후 방학중 진행되는 사항으로 냉난방, 전기료 등의 추가로 지출되는 부분이 있어 인상안을 제시했음을 설명함
- 백다연 위원: 대학원 신입생 1학기 동결에 대한 학교측의 구두 답변에 의하면 타대학으로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입생 모집이 12월에 이미 끝났고 등록금(예치금) 납부가 완료되어 인상이 어려워 2학기 부터 인상을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학교가 등록금 인상에 대한 의지가 확고히 있는지 여부가 이점에서 의심스러우며 대학원의 신입생 모집요강을 면밀히 검토를 해보았는데 등록금 인상을

간 서 명	정 세 훈	김성주	백다연
-------	-------	-----	-----

정말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한 부분이 맞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웠음을 말함 만약 간절했더라면 신입생을 모집하기 이전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좀 더 이전에 학생들과의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듦 현재 등록금 인상에 대한 재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중에 하나가 당황스럽고 갑작스럽다 입니다. 정당하게 인상되는 것이 아니란 생각이 자꾸 들면서 전체 재학생들은 인상이 불필요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6억이라는 돈이 학생들에겐 물론 큰돈이지만 학교 운영측면에서는 큰돈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으며 다른 부분에서 충당시킬 수 없었던 걸까라는 의심이 듦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동결을 우선적으로 강경히 주장하지만 불가피하게 불필요한 변명들을 배제 시키고도 자금예산이 필요하다면 외국인학생 혹은 대학원생만 인상하는 것을 같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 남호인 간사: 백다연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정정을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대학원에 현재 게시되어 있는 모집요강은 2차 모집 요강으로 12월에 실시한 1차 모집요강은 모집이 완료되어 게시가 종료된 상태임을 설명함 대학원 모집 예측 인원을 확인해보니 대학원만 인상을 하는 것은 대학 운영 측면에서는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체적인 인상이 필요함을 설명함
- 정세훈 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는지 확인함
- 김윤아 위원: 본인은 현재 보건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자 작년도 제1대 보건대학 학생회장이였음 본인 역시 앞서 말씀주신 학생위원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등록금 인상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이며 이에 등록금 동결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수혜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비로 대체 운영한다고 하지만 이 또한 예산액 변동 가능성이 다분함으로 보장되지 못한다고 생각함. 따라서 국가장학금Ⅱ유형을 포기하면서까지 인상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복지는 시설보수보다 장학인데 그럼에도 등록금 인상이 정말 학생들을 위한 것이 맞는지 질의하고 싶음. 두 번째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약16억의 수익으로 시설 수리비 예산을 증액시킨다고 하더라도 복지 향상 체감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학교측에서

간 서 명	정 세 훈	김윤아	백다연
-------	-------	-----	-----

제시한 시설 보수는 일부 건물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투자 비용이 크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국내 학부 재학생들이 쬼어질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함 세 번째 타 단과대의 인상률이 상이한 근거의 증빙자료 및 등록금 인상에 대한 근거가 부족함 이어 또다른 질의로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증액되는 예산이 아닌 기존의 등록금이 계열별 인원과 계열별 등록금 액수와 모인 총등록금이 사용되는 분야가 어떤 비율로 나뉘어 사용되는지 그리고 비용이 어디서 정확하게 부족하게 되는지 질의함. 계열별로 등록금 인상의 비율이 상이 하다면 이에 따른 계열별 등록금과 어떤 이유에서 다른 인상률인지 이 상이한 인상률이 각 계열별로 어떻게 세부적으로 운영되었고 운영될 것인지 질의함. 또한 재정위기 대학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하신 바 있음 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 자료가 없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정에 불가하다고 생각됨 본인은 학생위원이기 이전에 보건대학 학생대표이며 작년부터 학생들의 곁에서 고충을 누구보다 옆에서 지켜봐왔음. 이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저희 학생위원들의 근거와 의견을 그리고 6,000여명의 학생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 등록금 인상을 다시 한 번 재고해주시길 강력하게 요구함

- 정세훈 위원: 등록금을 인상하여 국가장학금II유형을 교비로 보존을 한다 해도 등록금을 인상한 효과는 있다고 보이며, 교육환경개선 문제는 수리보다는 교체로 진행되기 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 생각이 됨. 계열별 등록금 차이가 나는 것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시된 안임을 다시 설명함
- 김윤아 위원: 계열별 등록금 인상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설명 요청함
- 정세훈 위원: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 투자 할 것임을 설명함
- 김윤아 위원: 계열별 차등 등록금 인상 기준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며 인상한 금액을 계열별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함
- 남호인 간사: 계열별 차등 등록금 인상(안)은 공학계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인문계열의 인상폭을 높였음을 이전에 이미 설명을 드렸고 인상한 금액을 계열별로 어떻게 활용할지 여부는 여러 가지 공동으로 활용되는 전기세, 난방비 등을 분리하기가 어려움을 설명하며 최대한 에벤에셀관, 말씀관 교육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설명함

간 서 명	정 세 훈	김 윤 아	남 호 인
-------	-------	-------	-------

- 백다연 위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학교 학생들의 이익 보장을 추구하는 입장이라고 믿습니다. 그에 맞게 예산을 책정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학생들을 생각해주시는 위원분들의 가치와는 다르게 학생들은 이에 대해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명서까지 제출하고 있습니다. 방금까지 1,770개의 서명운동이 진행됐습니다. 이는 대부분 주말, 이틀이라는 단기간에 이루어진 수입니다. 재학생 및 휴학생까지 참여하여 약 30퍼센트가 진행됐으며 현재 회의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응답률이 오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돈, 학생들의 부모님 돈, 이 돈은 자그마치 십 몇 만원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돈 조차 어려운 학생들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제가 주장한 정당하지 못한 등록금 인상 사유, 정확하지 못한 자료들로 진행됨으로 인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의 목적 상실, 학생들이 원하지 않은 학생교육환경 개선 계획 진행에 따른 학생들을 위한다는 학교 측의 입장의 모순에 힘을 실어 반대의 입장에 강경히 서는 바입니다. 이렇게 많고 강력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위원분들은 등록금 인상에 대해 재고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나라 위원: 저 또한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며 동결을 주장하는 입장이며, 인문사회계열 등록금 인상안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아교육과의 경우 마이크로디그리 핵심 기초교양을 듣게 되면 전공을 들을 수 있는 여유학점이 1학점밖에 없기 때문에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가 많고 전공보다는 교양으로해서 많이 듣고 있음 간호학과 등도 마찬가지임 매우 불리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 계절학기를 듣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계절학기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 또한 불리함을 말함
- 남호인 간사: 계절학기를 전공, 교양 중 어느 과정을 많이 수강하는지 문의함
- 이나라 위원: 전공보다는 교양을 많이 수강하고 있음을 말함
- 정세훈 위원장: 이나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유아교육과 계절학기 수강 문제 등을 따로 확인을 해보겠음
- 정세훈 위원장: 그럼, 오늘회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배석자 퇴장을 요청하며 마지막 회의 진행 여부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 말씀해주시기를 요청함

간 서 명	정 세 훈	최동주	백다연
-------	-------	-----	-----

- 이거파 위원: 등록금 인상 반대 서명이 현재 진행중으로 다음 회의 개최 관련 하여 시간을 좀 더 주셨으면 함
- 남호인 간사: 2024학년도 등록금 확정 마지노선은 이번주 26일 금요일로 등록금 인상 및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4차에 걸쳐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며 반대 서명자료는 취합하시는데로 전달을 받으면 되니 다음회의를 학생위원님들이 원하시는 26일에 진행을 해도 무방할 것 같음
- 정세훈 위원장: 등록금 인상에 대한 대학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며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게 필요함을 추가적으로 설명함 2024학년도 신한대학교 등록금 확정은 다음 회의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회의는 1월 26일(금) 14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함
- 정세훈 위원장 : 기타 다른 의견 또는 질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한 후 폐회를 선포 함

4. 결정사항

- 2024학년도 신한대학교 등록금 확정은 다음 회의시 진행하기로 결정함
- 차주 회의 안내 : 2024년 1월 26일(금) 14시, 믿음관 3층 세미나4실

5. 행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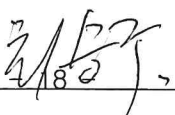
- 위의 회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 간서명은 참석위원 중 정세훈 위원장, 최승구 위원, 백다연 위원이 대표로 간서하며 참석 위원들은 서명날인하기로 함

2024. 01. 22.

위원장	정세훈	
위 원	구효진	(인)
위 원	류재경	(인)
위 원	최승구	
위 원	오충현	

간 서 명	정 세 훈	최승구	백다연
-------	-------	-----	-----

위 원	한지웅	
위 원	정재덕	(인)
위 원	백다연	
위 원	이거파	
위 원	김윤아	
위 원	이나라	
위 원	고완상	

간 서 명	정 세 훈		백다연
-------	-------	---	-----